



미국 가계대출 큰 폭 증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2012년 5월 미국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171억 달러 증가한 총 2조 5,700억 달러(계절조정)로 2008년 7월 최고치인 2조 5,800억 달러에 근접하였는데, 이는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.
 - 5월 리볼빙과 같은 신용카드 대출은 2007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인 80억 달러 증가하였고 총 8,702억 달러의 잔액을 기록함.
 - 미국 소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 대출을 크게 축소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도 소폭 증가에 그쳤음.
 - 가계대출은 최근 2년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증가에 의한 것이었으며,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은 5월에도 91억 달러 증가하면서 1조 7,000억 달러를 기록함.

- 전문가들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소비자 신뢰가 낮은 가운데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5월 고용지표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비자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가계가 기존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자율이 높은 대출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됨.
 - 그러나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증가는 은행이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이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됨.
 - 한편 미국은행협회에 따르면 2012년 1/4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5년 내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.

(New York Times, 7/9 등)